

LCNG 충전소 설치 '불꽃 마찰'

〈액화압축천연가스〉

대창운수, 오룡동에 90t 규모 추진 ... 북구청 "중복투자" 허가 반려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제기 '촉각'

광주 최대 버스업체와 북구청이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업체가 광주시 행정심판을,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준공예제 지원 규모도 증감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시내버스 910대 중 3분의1 이상인 312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창운수(주)가 지난 3월15일 북구 오룡동 차고지에 저장능력 90.3t 규모의 LNG와 CNG를 모두 충전할 수 있는 LCNG 충전소를 북구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허가를 신청한 차고지에서 1.4km 떨어진 곳에 4년 전 16억3900만원을 투자해 설립한 CNG 충전소가 이미 설치돼, 중복투자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고, 차고지에는 90.3t 규모의 가스저장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대창운수 측은 지난 5월27일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비슷한 시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창운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저렴한 가격에 CNG를 공급받으려는 자구노력을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북구청과 광주시 해당 실과의 의견은 다르다. 대창운수 측이 원료비 절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CNG 충전소의 판매불량이 겹쳐서 CNG가

격이 상승, 인상분만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가 증가하고 결국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연간 8억원씩 가중된다는 것이다. 현재 CNG 가격은 원재료비에 공급비용을 더해 산출되며, 따라서 공급이 많을수록 가격이 하락한다.

또 이미 해양도시가스가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17억1000만원을 들여 현재 광주지역 버스 910대의 2배에 이르는 1832대를 충전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망과 충전소를 갖추고 있어 추가 충전시설의 설치 불합당하다고 북구청 등은 주장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난해 말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가스를 받을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LCNG사업자를 포함시켰다가 다시 최근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대창운수에게는 원료 절감 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공공 이익과 안전을 고려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광주시도 이례적으로 행정심판을 불허한 뒤 3개월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 개정이나 광주시 인사로 인해 민간 및 당연직 위원들이 바뀌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원들에게 설명할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
 ▲LCNG(액화압축천연가스) Liquid Compressed Natural Gas. LCNG충전소는 탱크로리차에 의해 직접 운송된 LNG에 가압, 기화해 LNG와 CNG 충전이 모두 가능.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해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시랑 마라톤

제7회 전국 호시랑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3500여명의 건각들이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효천역 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진재덕씨가 1시간 16분 50초의 기록으로 개인 남자하프코스 1위, 여자 부문 김애경씨가 1시간 30분 25초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금 15만원 안 준다고 사장 납치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2008년 9월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 J(26)씨. J씨는 지난 5월까지 합평군 학교면 정모(49)씨의 기와 공장에서 일하다 비자 만료 기간인 5월 24일이 가까워지자 군산의 한 양계장으로 옮겨졌다. 이후 불법체류자가 된 J씨는 양

계장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일 다시 정씨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나흘 뒤 J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정씨를 찾아가 "직장을 옮겨야 하니 3일치 일당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 안된다"

우즈벡 출신 20대 불법 체류자 200만원 받고 풀어줬다 붙잡혀

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화가 난 J씨는 공장에 있던 흥기로 정씨를 위협한 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광주시 남구 진월동 정씨의 집 인근까지 끌고갔다. 또 광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정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을 살리고 싶다면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J씨는 남구 진월동 효천역 인근에서 정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고 정씨를 풀어준 뒤 택시를 타고 도망쳤다. 그러나 J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키르키즈스탄 출신 동료(33)를 만나던 중 잠복중인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0일 J씨에 대해 인질감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경찰 자살 잇따라

격무·스트레스 대책 시급

최근 광주에서 가정 문제·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고민해오던 경찰관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지방경찰청 숙직실에서 보안과 소속 황모(46) 경위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한 장이 발견됐다.

황 경위는 3년 전부터 아내가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 최근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9시께에는 광주시 남구 백운동 모 원봉에 사는 광주경찰청 소속 김모(26) 순경이 자살했다. 당시 김 순경은 여자친구로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 9일 오전 8시30분께에는 화순군 화순읍 자사의 집에서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38) 경장이 목을 매는 등 지난 1년여 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가정문제·신변

비판·여자친구 문제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외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찰 내부 문화와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공식생활에 대한 부담감, 불규칙한 가정 생활, 과중한 업무가 경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트레스·우울증을 탐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과 심리적 고통 상담할 카운슬링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의 경우 가정 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를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작은 문제라도 외부에 알려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신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이나 친구·동료와 자주 어울리는 '소통 창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가정불화 '화기 방화'

'화기' 방화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A아파트 9층 서모(63)씨의 집에서 불이 나 내부면적 90㎡를 태우고 3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집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씨가 가정불화로 화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올 들어서만 66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분노를 불러오면서 화기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30분께에는 나주시 산포면 황모(49)씨의 집에서 방

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내부면적 66㎡를 태우고 6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집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화씨가 가정불화로 화기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방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에서는 올 들어서만 66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느끼는 좌절감이 분노를 불러오면서 화기 방화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친구 결혼식 참석 하려다

20대 모텔서 추락사

10일 새벽 5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 앞에서 이모(28)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모텔 종업원(2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열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목포에서 광주로 왔으며,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모텔 7층 객실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139) 김종두



여수 5만원권 위폐범 검거

여수경찰은 1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이모(29)씨를 통화의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6일 자정께 여수시 내에서 자신이 만든 5만원권 위조지폐를 택시비로 내는 등 위폐 5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박성태기자 mihang@

여성들에 음란 동영상 300차례 보내

○광주동부경찰은 10일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로 자신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낸 이모(44)씨에 대해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자정께 광주시 동구 학동 모 마트 앞에서 김모(여·38)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원 등이 든 가방을 훔친 뒤 김씨 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모(여·33)씨 등 4명의 번호로 자신의 음란 행위 모습을 담은 동영상상 300여 차례 발송한 혐의.

○절도 10범인 이씨는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이름만을 골라 '뭉쓸지'를 했는데, 여발신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지난 8일 동구 학동의 한 모텔에서 또 다시 동영상상 촬영하던 중 '달미'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